

교회소식

- Covid 19으로 인한 락다운(Lock down)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인내와 경건으로 강건한 삶을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 이번 주 공동 성경 읽기 범위는 욥기 19장에서 39장까지입니다. 조금 어려운 본문이지만 성령님의 지혜를 구하며 묵상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범위: 욥기 19장 - 39장 (매일 3장)
- 이번 주 공동체별 화상 모임은 바누아투와 네팔 공동체입니다(오후 8시).
화 - 바누아투 공동체 (인물연구: 삼순)
목 - 네팔 공동체 (인물연구: 세례요한)
- 성전 이전을 위한 전교인 기도가 매일 저녁 9시(각 가정)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로 성전 이전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하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
 - 활동이 자유롭지 못한 가운데에도 성전 이전의 길이 열리도록.
 - 이전을 위한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도록.
- St Andrews 교회(Symonds St)의 Johannes, David 목사와 성전 이전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좋은 의견 나눔이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 주일부터 서머타임이 시작됩니다. 오는 토요일(25일) 저녁 시계를 한 시간 조정해 놓고 주무시기 바랍니다(예: 9시 → 10시).
- 고국의 추석 주간입니다. 각 공동체장을 비롯하여 모든 성도들이 서로 서로 주안에서 안부의 교제를 하는 갈보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 주일예배는 www.youtube.com/calvaryorgnz 이나 카톡 방을 통해 전달된 주소를 클릭하시면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예배 순서 주보 참조).
- 온라인 헌금 방법 안내해드립니다.
예금주: Calvary Church
은행구좌: ASB 12-3042-0352091-00

우리 갈보리교회를 처음 방문해주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담임 목사와 만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배 후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September

교회사역일지

9월 5일(주일)
인도자 성경 공부
9월 26일(주일)
성찬 주일
권사 기도회
9월 30일(수)
선교회 주관 예배

기도순서

9월 26일 (주일)
손조훈 집사
9월 29일 (수)
김자경 권사
10월 3일 (주일)
이정인 집사
10월 6일 (수)
김창조 집사

예배봉사자

예배 안내
박제용, 김영옥
새신자 안내
차영철, 심경순
주차 안내
민광호
주방 봉사
박제란, 김명옥,
박영신, 허영순,
박혜정

70 Khyber Pass Road,
Grafton, Auckland

T 09 369 5077

M 021 968 388

E LTH-07@calvary.org.nz

www.calvary.org.nz

www.youtube.com/calvaryorgnz

www.koreaniptv.co.nz



해 / 외 / 한 / 인 / 장 / 로 / 회
갈보리교회
창립 1999/07/18

오직 기도와 말씀 으로

빌립보서 4:6

예배시간안내

주일 1부 예배 11:30 am
청년찬양예배 2:00 pm
유아부 11:30 am
아동부 11:30 am
청소년부 11:30 am
수요예배 7:30 pm
금요기도 7:00 pm

섬기는 사람들

담임 목사 이태한
부 목사 이성훈
전도사 김양이

23권 38호 2021.09.19

주일예배

1부 오전 11시 30분 인도: 이태한 목사
2부 오후 2시 (청년찬양예배) 이성훈 목사

찬양	Praise		주일 찬양단
예배로부름	Call to Worship	시편 118:24-25	인도자
찬송	Hymn	10장	다함께
참회의기도	Prayer of Repentance		다함께
신앙고백	The Apostle's Creed	사도신경	다함께
찬송	Hymn	279장	다함께
대표기도	Prayer		박영민 장로
성경봉독	Scripture	히브리서 11:13-16	인도자
찬양대찬양	Choir		나무십자가 찬양대
설교	Sermon	이사람들의 증언	이태한 목사
찬송	Hymn	303장	다함께
헌금기도	Offering		인도자
교회소식	Announcements		인도자
공동성경읽기	Closing Scripture		다함께
응답송	Closing Hymn	171장 (1절)	다함께
축도	Benediction		이태한 목사

✧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헌금은 들어오실 때 봉헌함에 봉헌하시기 바랍니다.

선교란

이번 주는 베트남 이지양 한진숙 선교사 소식입니다.

평안하신지요?

어려운 상황이지만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아는 은혜가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코로나19가 처음 발병했을 때, 뉴스를 통해 전해지는 다양한 해석과 해결방안을 보며 머지않아 일상의 삶으로 곧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추측과는 다르게 코로나는 어려움과 고통의 시간으로 지구촌을 움직이지 못하게 묶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지난 7월 - 8월 두 달 동안 베트남은 코로나, 쓰나미로 모든 것이 멈추었습니다.

7월은 마트, 병원, 약국, 은행은 통행이 가능했으나, 8월 중순으로 넘어가면서 전면 통제를 시행했습니다. 외출이 불가능하여 집에서만 있어야 하는 상황을 경험하면서 지난날의 일상생활이 너무도 놀라운 기적의 축복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 7월에는 현지 교회들과 연합으로 안푸투언 교회와 생필품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8월에는 푸꽁 교회와 구제 사역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가까운 어려운 가정들은 거리 두기 일환으로 소수 사람이 받아 가시고, 멀리 떨어진 가정들에게는 조그만 배로 운반을 해서 나누었습니다(통행증이 없어 육로는 어려웠습니다). 나누는 것은 쌀, 라면, 간장, 액젓, 기름, 설탕, 미원 등입니다.

귀한 양식을 나누어 주시는 것에 모두 고맙고 감사하다고 인사하십니다. 하루 벌어서 먹고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일을 못한 지가 참으로 오래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작은 것 하나라도 건네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용기와 힘이 됩니다. 어떤 가정은 4식구, 어떤 가정은 6식구, 서러움 중에 제일 서러움은 배고픔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아와 과부와 객과 이방인들에게 선행을 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이 시대의 과제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찾아가서 사랑의 전달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제목

1. 함께 동역하는 교회와 기업과 개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2. 이곳에 사는 한인들이 코로나의 어려움을 지혜롭게 돌파하도록.

수요예배

오후 7시 30분

찬	양	Worship	수요 찬양단
기	도	Prayer	김은희 집사
성경	봉독	Scripture	베드로전서 1:8-12
설	교	Sermon	믿음의 목표 이태한 목사
찬	송	Hymn	-
주	기도	The Lord's Prayer	다같이

나눔란

2021년 9월 12일 주일예배 설교말씀 <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 II> 에베소서 3:14-21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바울을 보고 낙심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바울은 눈에 보이는 현상 이면의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는 오늘 날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바울 사도는 가족과 같은 교회 공동체를 위해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15). 세상과 물질이 아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바울을 통해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배우니다.

1) 성도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기도(16):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집니다(고후 4:16).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으면 절대로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없는데 이 속사람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강건해집니다. 성령체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산다면 성령으로 행하는 것이(갈 5:25) 당연하듯 매 순간 철저히 성령님을 의지하고 다스림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겉사람이 깨어져야 합니다. 겉사람에 집착하면 속사람에 무관심하게 되어있고, 겉사람은 항상 육신의 욕심에 이끌리기에 성령으로 충만해진 속사람이 겉사람을 지배할 때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환난과 고난에도 낙심하지 않는 견고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여기기 쉬우나 내 속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친밀함과 사귄다 교제로 속사람이 강건해지며,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2) 성도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를 기도(17): 성도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에 이미 마음에 주님이 계시는데 바울이 이렇게 기도한 이유는 그 마음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임재하는 상태가 되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하나 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하나 되기를(요 14:20) 기도한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을(갈 2: 20)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예수님을 무시하고 홀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인생이 되어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서 살아계시게 해야 합니다. 그 열쇠는 믿음입니다(히 11:1). 우리는 믿음을 거저 얻었기에 때로 믿음을 하찮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겨자씨만한 믿음만 가져도 전능자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함께 하십니다. 주님을 무시하며 손님처럼 대할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때와 장소와 결정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시도록 해야 합니다.

3)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크신 사람을 깨닫기를 기도(3:18-19): '깨닫는다'는 말은 단순한 지적 동의가 아니라 '주저함 없이 붙잡아 내 것이 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려면 신학과 교리로는 절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맛보아야 합니다. 바울은 자기 스스로는 절대 찾을 수 없었던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셨고 먼저 용서해 주셨고 먼저 일꾼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알아야 합니다(요일 4:10). 이 사랑을 붙잡아야만 바울처럼 비록 감옥에 갇혀 있어도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고백할 수 있으며(20) 이 사랑과 능력과 은혜를 의지할 때에만 자신보다 교회를 위해 중보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보리 온 성도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마음속에 예수님이 항상 계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맛보아 알고 붙들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금주의 공동 기도 제목

1.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함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2. 직장, 비자, 질병의 어려움이 처한 성도들에게 해결과 치유가 있도록.